

24. 회개하는 마음

신앙고백
찬 송 :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시편 51편 1~19절

말씀묵상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께 참회하며 시편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다윗이 보여 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1-5).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위반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치욕스러웠음에도 백성들 앞에서 죄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6-12).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건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는 우슬초로 자신을 정화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속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일상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3. 의로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16-19)
다윗은 주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이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긴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예배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제사, 즉 온전하고 의로운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맺는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적용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진정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고백합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새로 등록한 가족

등록번호	이름	직분	목장	인도자
22-15	최광서	성도	3	최광순 권사님
22-16	최순엽	성도	3	
22-17	최진	청년	청년부	
22-18	최슬	학생	청소년부	

1. 성령강림 후 첫째주일
오늘은 성령강림 후 첫째주일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 예배안내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가 대면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참석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 임마누엘 찬양대 연습
오늘 2부예배 후 본당 찬양대석에서 모입니다.
4.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6. 사임
천광우목사님께서 덴마크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사임하십니다.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7. 부임
이은재전도사님께서 전임전도사로 부임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목사 : 조 항 철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전임전도사 : 이은재	지 휘 자 : 박경미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영
	김성혜 이하림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조항철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186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136.성령강림(2)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90장 다같이

기도

1부: 박명원 권사

2부: 정지영 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3장 11~16절 (신약 190면) 인도자

특송 소원 1부: 영상

뜻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2부: 박경미 지휘자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 조항철 목사

금주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6월 봉사위원

		6월 12일	6월 19일	6월 26일	7월 3일
예배 기도	1부	박명원	나자금	박영애	남영옥
	2부	정지영	윤충진	이미숙	안순조
	3부				
헌금위원		1부 : 안상분 2부 : 임근실			

찬양 . . . 그 사랑 얼마나 . . . 다 같이

헌금기도 . . . 인도자

교회소식 . . . 인도자

※찬송 . . . 370장 . . . 다 같이

※축도 . . . 조항철 목사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 오후 9시

말씀 : 이은재 전도사

말씀 : 조항철 목사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30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율	정지영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자율

【사도행전 3장 11-16절】

11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 . .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공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쓰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둔전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방법

1. 카카오톡에서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2. 둔전교회를 검색합니다.



3.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버튼(채널추가하기)를 누릅니다.



4. 채널을 통해 둔전아침묵상과 교회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강인식·심은영 김명숙 김예찬 박심원·윤관순 백세완·김금란 백영준
백영훈 신연호·안상분 윤주영 윤희자 임수정 임신자 정영숙 정재현
정종언 조명숙 조점동·황영옥 최진수 최충균·송애련

◆ 감사헌금

조항철·송경옥 김용수·이미숙 김재정 남영옥 명민주 박상민
박심원·윤관순 박재락 방지원 서인순 안순조 유병희 유인숙 이미옥
이순자 전명숙 정광옥 정영숙 최광순 최영란 최충균·송애련 표금숙
황미선 무명

◆ 선교헌금

◆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637,000	1,240,000	5,366,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

